

높아진 실적 눈높이와 일상이 된 서킷브레이커

KOSPI 7.656pt (-4.9%), KOSDAQ 831pt (-1.9%)

① 해외 상황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 속 되살아난 반도체, 3대지수 동반 상승

- 전일 미국 주식시장 상승(다우 +0.3% 사상 최고치, S&P500 +0.7%, NASDAQ +1.1%,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2.1%) 최근 공급 과잉 우려 등 노이즈로 급락했던 반도체와(AMD +6.6%, 브로드컴 +3.7%, 인텔 +1.5%)·빅테크(테슬라 +6.7%, 메타 +3.0%, 구글 +1.8%, 애플 +1.3%)반등한 반면, 헬스케어·유통은 약세

② 수급 역사적 하단 수준의 삼성전자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3.1조, 외국인 -2.9조, 기관 -0.3조원 순매수(연기금 +285억원). 외국인 현물 순매도, 선물은 K200 선물 2,812계약 순매수. 장중 급락 및 서킷브레이커 발동에도 연기금 추가 순매수 여력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기관(투신) 동반 반도체 대형주 순매도

③ 특징업종 반도체, 산업재 동반 하락

- 오후 1시 51분 코스피 8%대 급락으로 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피 대형주 -6.2%, 중형주 -1.5%, 소형주 -1.1%. 상승종목 358개 Vs. 하락종목 512개. 코스닥 상승종목 484개 Vs. 하락종목 1,195개. **1) 반도체:**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 89.4조, 컨센 85조 상회)에도 차익실현에 급락(삼성전자 -6.9%, SK하이닉스 -6.1%). 엔비디아 차세대 AI서버 연기 보도로 기판 부담이 부각된 삼성전기는 낙폭확대(-9.9%). **2) 방산·조선:** 캐나다 60조 잠수함(CPSP) 우선협상자가 독일 TKMS로 확정되며 수주 실패에 급락(한화오션 -22.7%, 한화시스템 -13.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2%).

④ 이벤트 FOMC 의사록 발표 대기

- 1) NATO 정상 회의(7~8일), 2) FOMC 의사록(9일 3시, 예정), 3) SK하이닉스 나스닥 ADR 상장(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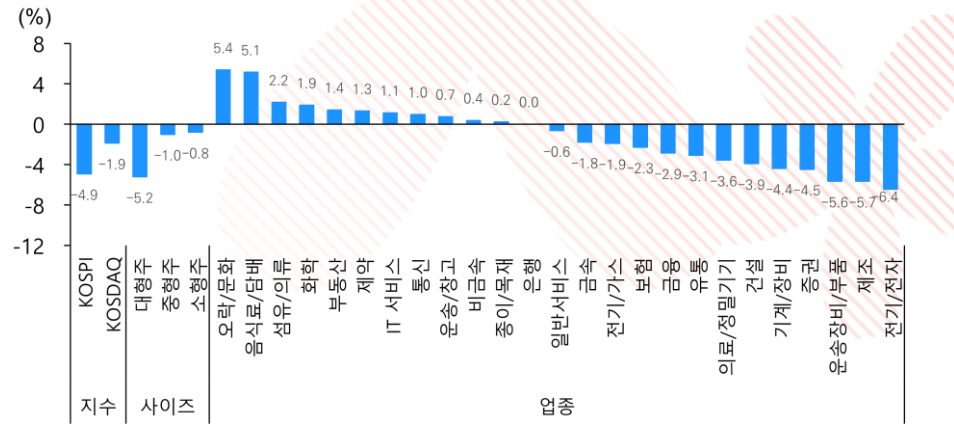
⑤ 상황 시장 하락 이유 셋

- 금일 KOSPI, KOSDAQ 각각 4.9%, 1.9% 하락. 장중 또 한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변동성 재부각되며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후 낙폭 소폭 회복
- 첫째,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예상치 상회에도 컨센서스 상단(90조원 수준)과 시장 기대치에는 부족. 공식 컨센서스는 상회했으나, 시장 일부는 성과급 총당금 제외 기준 100조원 안팎의 이익 가능성까지 기대. 결국 영업이익 89.4조원은 절대적으로는 사상 최대였으며 세계 최대이지만, 주가에 반영된 whisper number를 넘기에는 부족. 실적 발표는 신규 매수의 계기가 아니라 차익실현의 명분
- 둘째, 모건스탠리의 “반도체에서 하이퍼스케일러로” 로테이션 콜이 투심 악화. 모건스탠리는 AI 사이클이 이동하면서 반도체에서 하이퍼스케일러로 투자자 관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 동시에 AI 제품이 대규모 지출을 정당화할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아직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
- 셋째, 레버리지 ETF와 파생 포지션이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판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 KOSPI가 하락하고, 이 과정에서 가격 하락이 추가 매도를 부르는 숏감마성 움직임이 발생. 레버리지ETF 출시 이후 변동률(일간 고가 대비 저가) 삼성전자 7.1%, 하이닉스 8.6%로 확대. 지수 시가총액 비중 50%를 넘어서 두 종목이 일평균 7~8% 움직이는 것은 KOSPI 지수 전체의 변동성 확대 야기. 금일 서킷브레이커 발동 수준의 급락에도 아시아 주요 지수 낙폭은 미미 & 한국시장 단독 급등락. 실적 실망만으로 한국시장이 아시아 주요국 대비 이 정도로 크게 흔들리기는 어려움. 하락의 트리거는 실적과 모건스탠리였지만, 하락폭은 레버리지·파생·외국인 바스켓 매도가 증폭시킨 것으로 봐야 하는 이유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3,108	-243
외국인	-29,175	3,855
개인	31,361	-3,614
거래대금	396,597	62,765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